

“통 큰 기부보다 소소한 개인 후원 대세”

교계 모금 크라우드펀딩 인기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등 사업이나 모금방식 다양화 장점 공익후원·문화창작 지원도 가능

2013년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의 숫자는 1만1579개. 저마다 필요성을 내세우며 진행되는 사업 틈에서 일반인 눈에 띄어 후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든든한 정기 후원금이 뒷받침돼 준다면 걱정 없지만 한 교계 NGO 단체의 경우 1년 사업비 중 10%만이 정기후원금으로 충당된다. 나머지는 거의 캠페인별 모금 사업을 따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아직 기부문화가 자연스레 자리잡지 않은 교계 정상 개인에게 많은 후원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크라우드펀딩이 국제구호단체나 소외계층 지원의 주요 기부수입원으로 떠올랐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전문 자본가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금액의 기부, 후원을 얻어내는 온라인상의 모금 활동.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로 소외계층 지원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 공익후원 뿐 아니라 문화창작지원까지 아우른다.

기업이나 시민들의 후원으로 꾸려가는 NGO 단체 입장에선 활용에 따라 사업이나 모금 방식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일종인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등은 여전히 후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요한 모금 창구가 된다.

네이버 해피빈은 2005년 개설이후 올해

누적기부자 1천만명과 누적모금액 390억 원을 넘었다. 다음 희망해 역시 누적기부자가 약 500만명이다. 소외계층 지원부터 공익사업 등 다양도로 모금을 제안할 수 있다. 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과 독도 광고비 모금 캠페인 등이 이루어졌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뤄지는 기부 덕분에 100원 단위의 소액기부가 주를 이루지만 푼돈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stop! hunger!’라는 캠페인을 7월 초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탄자니아 학교 학생 300명에게 한달동안 옥수수죽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영양지원 프로젝트였다. 8일간 짧게 진행된 모금에 96명이 참여해 24만 7800 원을 모았다. 많게는 3만 6800원부터 적게는 100원의 기부까지 네티즌들의 심심일만 참여로 당초 목표금액이었던 23만 4500원을 무난히 달성했다.

아름다운동행이 2010년 네이버 해피빈에 가입한 이후 총 모금한 금액은 3천8백 여만원. 모금횟수는 43회에 이른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곳은 NGO 단체뿐만이 아니다.

신사중합사회복지관(관장 지원)은 뇌성마비에다 산소발생기로 호흡보조를 받아야 하는 중도지체 장애인인 최진석 군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해피빈을 통한 모금 활동에 나서고 있다. 첫 10개월간 모금된 금액은 1천만원. 그 다음 해에는 990만원이 모였다고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모금 캠페인은 이미 495만원이 적립됐다.

최진석군 어머니는 “해피빈을 통해 치료비만 지원받는 게 아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스스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 격려와 지지를 모으는 기반이 된 것이다.

전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한 모금도 실시되고 있다.

와디즈(www.wadiz.kr)는 자금이 필요



로터스월드에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모금 캠페인. 오른쪽 부분을 보면 현재 모금 상황이 그래프도 제공된다.

한 곳에 대중의 참여를 연결해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와디즈를 통해 한국 동화책을 미안마에 지원하는 사업 ‘책 읽어주는 꼬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출판의 자유가 제한돼 있던 탓에 미안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거의 전무하다. 8천원부터 10만원까지 후원을 받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금액별로 엽서세트, 파우치, 예코백 등을 제공한다. 모금사이트가 아닌 전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터스월드는 “로터스월드 측은 일반적으로 금전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통해 기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한 달 기간으로 시작된 모금에는 일주일만에 1백 18만원이 쌓였다. 목표금액 300만원의 40%를 달성한 것이다.

로터스월드는 5명으로 이루어진 자원활동가들의 개인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냐고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가 유의미한 것은 NGO와 NGO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로터스월드는 모금을 맡고 따비이라는 미안마 NGO단체가 동화책 제작을 맡는 협업 프로젝트인 셈이다. NGO 뿐 아니라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교계 어느 단체에서도 활용만 잘 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효과는 모금에 머물지 않는다. 한 네티즌은 “꼭 알아야 하는 사회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일컬어 돈보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며 대중으로부터의 좋은 평판이 성공의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예술적 끼 충만한 청소년 찾아요

마을사진 동아리·문화축제 참가자 모집

서울가양7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민)에서는 사진 동아리 ‘마을알리미’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양동에 대한 마을 사진 교육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구성해본다. 차후에는 사진 공모전, 현장학습,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모집은 7월 21일까지다. (02)2668-8600
이와 더불어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길표)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만들기를 위한 ‘2014 부천청소년

문화축제 Fantastic Youth’ 행사를 개최한다. 부천지역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밴드, 댄스, 노래 분야 경연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8월 16일 오후 6시부터 오정대 공연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본선은 9월 27일 석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선 수상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상장이 수여되며 본선 수상자에게는 부천시장상, 교육장상 등의 상장과 문화상품권이 시상된다. 본선 대상 수상자는 9월 27일 행사 당일 부천시민음악회 출연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신청기간은 8월 1일까지다. (032)681-0110 **배현진 기자**

손수건 직접 만들어 어르신께 선물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에코아트 나눔 캠페인

대천 보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은 한화그룹,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한화예술더하기’ 에코아트 나눔 캠페인을 7월 17일 진행했다.

한화에술더하기 사업은 문화예술과 접목해 환경인식을 높이고자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온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2~6학년 아이들은 환경캠페인을 직접 기획해 보고 환경사랑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이날 친한형 손수건을 제작한 아이들은 이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이 만든 손수건이 전달된 곳은 인근에 위치한 새출발 축복의 집 노인요양원이다. 양희옥 원장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손수건을 제작했다는 데서 기쁨과 고마움을 느꼈다”며 “손수건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들이



한화에술더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손수건에 글씨를 써 넣고 있다.

많이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측은 “그동안 받은 것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직접 캠페인을 준비하고 공예품을 만들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리는 과정을 통해 환경사랑 실천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사랑의 안전 울타리’로 고독사 예방

광진복지관, 홀몸 노인 비상연락체계망 구축

서울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망 구축에 나섰다.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사랑의 울타리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직원이 동원돼 광진구 내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일일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 대상 어르신은 759명. 25명의 전 직원이 하루에 평균 2명의 어르신을 담당한다.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확인했을 경우나 2회 이상 안부확인 불가할 때는 주변 사

람이 일차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운 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직접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측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폭염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안부전화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정서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 안전 울타리는 독거 어르신의 안전망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알콩달콩 친해졌어요”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선) 이용 어르신들이 7월 16일 인근 유원지로 소풍을 떠났다. 알콩달콩 사랑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요리, 다도, 건강체조 동아리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별로 모임을 가져왔지만 한꺼번에 17분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서로 어색함도 잠시, 계곡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랜만에 물놀이를 즐기던 어르신들 지루하고 지겨운 시간이 보내고 한결 친해진 어르신들이 ‘우리 친해졌어요’라는 문구를 든 채 활짝 웃고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문화시설 수시대관

공공시설 활성화로 시민 편의 제고

서울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에서 하반기(8월~12월) 문화시설 수시대관을 예약·진행한다.

대관 가능 시설은 5층 체육관(농구연습, 체육활동) 150석, 소극장 53석(세미나, 강연, 연주회), 4층 음악실(오케스트라연습, 합창) 40석, 댄스연습실(댄스, 발레, 댄스스포츠), 세미나실 20석(워크샵, 회의)이며 각 시설마다 소정의 대관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 보련 스피치는 “지역 내 기업들과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관 신청을 원하는 각 기관 및 단체, 희망지는 전화를 통해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1만원부터 10만원까지다. 청소년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육관의 경우 5만원에 대해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02)550-3632

배현진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8월 15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